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성

유진희 · 이연희⁺

서울패션전문학교 강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Exaggeration Shown in Contemporary Knit Fashion

Jinhee Yoo · Younhee Lee⁺

Part-time Lecturer & Seoul Fashion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4. 7. 15, 심사(수정)일: 2014. 9. 22, 게재확정일: 2014. 12. 1)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plicate how we reveal our identity and emphasize beauty in our passion for beauty. It also attempts to find out our sense of beauty in exaggeration of visual expressions. The purpose is to represent how the contemporary knit fashion is various and exaggerated in our modern fashion world, and also to give the direction of new knitwear designs through the visual analysis of exaggerated knit fashion. Literature research was done by studying reference books and magazines, leading papers and based on a dissertation thesis. This study collected 787 designer's works published in the world's big Four collections from the 2000 S/S to 2011 S/S, in 23 seasons during 12 years. In answer to 9 experts about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520 works were chosen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exaggerated knitwear.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e followings: The type of exaggeration shown in contemporary knit fashion was classified in three categories; Enlarge exaggeration, reduce exaggeration and transform exaggeration. As a sub-category, enlarge exaggerat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Volume expansion and the expansion by the material, gauge and larger composition application expansion. Reduce exaggeration appeared as mini-reduction, skinny-reduction and transform exaggeration was respectively classified into deformation of the shape and patterns. The characteristics of exaggeration shown in contemporary knit fashion appeared as the new formative sense. In terms of fuller sense and surface, using various materials, gauge, changes in the composition represented challenges for textiles. The exaggerated contemporary knitwear expressed sex appeal using tight-fitting effect. Contemporary knit fashion simplified the design by taking advantage of the strong elastic attributes. It showed the beauty of women, expressed variability and limitless knit characteristics beyond the conventional thinking. In addition, it has been well represented as a form of freedom, amusement and diversity.

Key words: enlarge(확대), exaggeration(과장성), knit fashion(니트패션), reduce(축소), transform(변형)

I. 서론

의복의 기능이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오면서 점차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복이 갖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복의 한 부분을 극대화시켜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을 의복을 통해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¹⁾ 이러한 과시욕은 인체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신체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과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강조의 의미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 사용된다. 복식의 과장적 표현은 인체의 새로운 형태의 재창조이고, 인간의 내적인 감정의 표현수단으로도 사용되며, 미의식의 새로운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의복 구성에 있어서도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응용과 발전 등의 효과를 가짐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조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체의 이상화(理想化)된 이미지는 각 시대마다 인체를 재구성하게 하는 당대 유행 복식에 표출된다.”²⁾고 표현한 Hollander의 말과 같이, 한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복식과 인체의 이상적인 관계를 전 시대와는 색다르게 도출해 내고자 하는 인간의 미의식의 표현으로 과장성 복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욕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시각적인 과장 표현의 조형성과 그에 따른 미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니트웨어는 성별, 연령, 시대를 넘어 폭넓은 소비계층에게 활용되는 아이템이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계화 사회에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을 중시하는 웰빙과 복고를 추구하는 현대의 트렌드에 맞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상징하는 니트가 다시 주목받는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소재의 특성상 유연성, 신축성, 성형성이 높은 니트웨어는 과장형 디자인에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되는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니트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니트 패션 분야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니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니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며, 현대패션 디자인에 있어 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는 과장성에 있어서도 니트의 과장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성의 하나인 과장적 표현이 복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어떠한 특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패션에서 보여 지는 과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의 방향을 분석하여 니트패션에 표현된 과장적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과장형 니트웨어로 개인의 개성표현뿐 아니라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과장성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며, 과장형 니트 패션을 발표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선별한다. 선별된 작품을 중심으로 시각적 분석을 통해 현대 니트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과장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여 새로운 니트웨어 디자인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들은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RTW(Ready To Wear)는 기성복을 선보이는 컬렉션으로 실질적인 패션의 경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2000년 S/S부터 2011년 S/S까지 12년간 23시즌의 세계 4대 컬렉션(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에 발표된 여성복 RTW에 나타난 니트웨어로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은 1차 과정에서 수집된 사진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과장형 니트웨어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 기준을 전문가 집단에게 제시하여 수집된 작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과장의 개념과 특징

과장(誇張, Exagge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으로 정의되며³⁾, 미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적 표현에 집중하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극적이고 변형된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⁴⁾ 또한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극대화 하여 사실주의 회화나 조각에서처럼 물체의 형태나 색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의식을 통하여 원형을 강조,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조형적 의미의 과장은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형태나 구조를 변형하여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조형적 의의를 갖는다.

미의식의 측면에서 과장은 은유적인 예술표현으로 형상물의 시각적 특성을 통해서 극도의 과장으로 인한 즐거움을 부여하며 예술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시대와 문화의 산물인 예술(건축, 패션, 음악, 사진, 무용 등)은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 조형 양식으로 존재하면서 동시대적 사조나 이슈를 반영할 뿐 아니라 여타 문화 현상들과 상호 의존적, 상호 수정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⁶⁾ 이러한 문화적 공유가 나타나는 예술 영역 중에서 과장된 조형물은 사물의 형태를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자연을 과장한 형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자연 그대로의 형태보다는 과장된 형태가 사상과 감정, 구성의 주제를 더욱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⁷⁾

복식에 있어서 과장은 자기 과시, 자신의 미적 욕구의 만족, 성적 매력의 강조, 이미지 변형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복식의 과장은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신체를 강조 또는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는 복식의 형태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한다. 또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나친 노출이나 과장, 왜곡 등 조형성을 지닌 형태로 나타

내는 것을 말한다.⁸⁾ 최근에는 신체의 형태를 무시한 과장의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장이라는 테마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여 즐거움을 더해주는 유니크한 의복 디자인의 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2. 복식에 나타난 과장의 유형과 의미

복식에 나타난 과장 표현은, 고대에는 신체의 일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중세부터 복식에서 과장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보여 졌다. 중세는 기독교 신앙이 주축이 된 봉건사회로 교회에 의해 문화의 발달을 이루었다. 중세에는 종교적인 금욕주의로 인해 개별적인 신체는 무시되었으며 형식이나 외형보다 내용이나 본질을 중시하였다. 고딕시대에는 종교적 이념의 표현으로 거룩하고 높은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념은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실루엣과 구두, 모자, 장신구 등도 길고 뾰족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고딕후기의 A라인 실루엣의 원피스 꼬다르디(Cortardie)는 수평선을 사용하지 않고 재단하여, 에닝(Hennin), 뿔랭(Poulaine)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고딕양식의 미의식과 종교적인 상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직적 과장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⁹⁾

패션의 과장성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근세(17~18세기) 이후부터이다. 근세의 패션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포함한다.

바로크 시대의 복식에서는 수평·수직적 과장을 볼 수 있는데, 드레스 뒤에 긴 트레인을 달아 신체 연장 효과로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키가 커 보이는 효과뿐 아니라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고 싶은 심리적 표현으로 수직적 과장을 나타내었다.¹⁰⁾ 수평적 과장은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양적 효과로 주로 어깨나 스커트에 많이 보여 진다. 사각형의 네크라인, 어깨에 패드를 넣어 옆으로 과장시킨 소매, 파딩게일로 부풀린 스커트 등으로 의복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수평적 형태로 통일을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이루어졌다. 로코코 시대의 스커트 실루엣에서 수평적 과장을 볼 수 있는데, 상체를 코르셋으로 조이고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스커트 폭

을 넓혔다. 파니에를 스커트 버팀대로 입었는데, 초기에는 벨 모양이었으나 후기에는 원통형의 파니에가 만들어졌다. 근대 복식에서도 크리놀린 스타일의 스커트에서 수평적 과장을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부풀린 과장된 형태가로 스커트 위에 대조되는 색의 주름장식, 리본, 레이스, 자수 등을 장식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를 나타내었다.¹¹⁾

르네상스 이후, 프랑스 혁명 전까지 계속되어온 과장된 실루엣은 크리놀린 스커트를 최고점으로 완성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화려했던 귀족의 영화를 재개하려 하였고 복식에서도 그들을 모방하려 하였다.¹²⁾ 1860년대 말, 크리놀린 스타일의 스커트 여유분이 뒤쪽으로 모아지면서 이것이 벤틀 스타일로 점차 변화되었다. 1880년대에는 벤틀의 크기가 과장되어 엉덩이가 90°각도로 돌출하면서 뒷면의 수평적 과장 형태를 보여 주었다.¹³⁾ 1890년경부터 스커트의 실루엣이 줄어들고 소매가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가느하리와 플레어로 퍼진 아워글래스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거대했던 소매가 갑자기 좁은 소매형태로 변하면서 1902년부터 'S'자형 실루엣이 완성되었다.¹⁴⁾ 소매를 과장, 강조한 것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스타일의 소매가 대표적으로 거의 땅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과장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레그 오브 머튼 (leg of mutton)소매와 지고소매(gigot sleeve)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패드를 넣어 소매 폭을 부풀리고 팔꿈치 아래 부분은 꼭 끼게 만들어 과장된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면서 볼륨감으로 권위와 위엄을 강조했다.

20세기에 들어와 허리와 몸, 엉덩이의 강조로 전통적 모래시계 형의 여성 신체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고, 여성 신체미의 초점이 가슴으로 옮겨져 가슴이 빈약한 여성은 과장된 인공 브래지어(Brassiere)를 착용하게 되었다.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강조한 여성 신체는 1900년 이전의 코르셋으로 과장했던 신체에 가까워졌다.

1970년대는 여성파위가 강해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여성들은 남성적 이미지를 모방, 도입하여¹⁵⁾ 어깨에 두꺼운 패드를 넣어 강조하고 스커트의 폭은 좁아졌으며 남성적인 스트라이

프와 체크무늬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과장형태의 하나로 바디컨셔스 (body conscious: 신체의 존재를 의식, 강조한다는 의미) 룩이 있다. 이는 신체에 밀착된 의복을 통해 풍만한 신체의 곡선을 잘 표현하여 에로티시즘과 생동감, 건강미를 강조한다.

20세기 말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는데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 중 과장된 패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가와쿠보 레이 (Kawakubo Rei)가 1997년 컬렉션에서 기존의 고정화된 신체 개념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패드에 의해 부풀려진 이미지는 이상적인 몸의 비례나 형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조형을 창조함으로써 신체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근세 이후 패션에 나타난 과장 유형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표 1>¹⁶⁾과 같다.

3. 현대패션에 표현된 과장 특성

패션에서 과장된 복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인체의 일부를 늘이거나 줄여 강조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인체 위에 표현된 조형물로서 복식을 이해하였다. 이것은 입체적 공간의 확보라는 미적 가치를 탐구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¹⁷⁾ 과장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김영란의 연구에서 확대, 강조, 왜곡, 분해를 통해 과장을 나타내고 있고¹⁸⁾, 과장을 '변형'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변형의 표현방법을 확대, 축소, 단순화, 분해 또는 해체로 구분하였다. 배정민의 연구에서는¹⁹⁾ 과장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왜곡, 확대, 축소의 의미로 나타내었다. 이기열은²⁰⁾ 과장에 대한 표현방법을 확대, 강조, 왜곡, 분해를 통해 과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의경은 과장의 표현성을 강조 (Emphasis)로 대변하였고 강조의 표현유형을 장식적, 과장적, 퍼포먼스적으로 구분하여 과장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장적 강조는 탈구조적 표현을 통해 과장, 축소, 은폐, 왜곡으로 변형시킴으로 과장된 장식과 추상적 조형, 상징적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²¹⁾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성

<표 1> 근세 이후 패션에 나타난 과장 유형

시대	연도	표현 유형	특징	사례
근세 16C ~ 18C	르네상스 (16C)	레그 오브 머튼 소매 메디치 칼라	패드사용, 권위와 위엄을 강조	 <p>- http://blog.daum.net</p>  <p>- <i>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i>, p. 133</p>
	바로크 (17C)	긴 트레인 러플칼라 파팅게일	신체연장 효과 가는 목과 허리 강조 수평적 강조	
	로코코 (18C)	파니에 코르셋	조인 상체와 넓은 스커트 수평적 과장	
근대 19C	1820년 ~ 1850년	로맨틱 스타일 X자형 실루엣	우아함과 호화로움 표현	 <p>- http://blog.naver.com(좌) - http://prologue.blog.naver.com(중) - http://m.blog.daum.net(우)</p>
	1850년 ~ 1870년	크리놀린스타일 종모양스커트 패티코트	낮아진 목선과 허리선 수평적 과장	
	1870년 ~ 1890년	버슬 스타일 아워글래스	버슬의 크기과장 가는허리와 플레어	
현대 20C 이후	1950년대	인공브래지어 (Brassiere)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강조	 <p>- http://www.purplenews.kr(좌) - http://m.blog.daum.net(중) - http://firstviewkorea.co.kr(우)</p>  <p>- <i>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i>, p. 112 - <i>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i>, p. 112 - <i>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i>, p. 88 - <i>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i>, p. 88</p>
	1960년대	페미니즘	히피 룩 화려한 장식과 색상	
	1970년대	매니시 룩	어깨 강조, 바지패션의 정착	
	1980년 ~ 1990년대	Body-Conscious 아방가르드	성적 매력의 변형된 표출 고정화 된 신체 개념 탈피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장의 형태는 크게 확대와 축소, 변형과 왜곡, 강조와 장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표 2〉 확대(廓大, Extension)와 축소(縮小, Reduc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장은 높이에 의한 과장과 부피에 의한 과장이 있으며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크게 또는 작게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²²⁾ 확대 과장은 부피와 면적, 길이의 늘임, 특정 부분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복의 크기와 길이의 확장에서 오는 양적 효과이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의복의 일부분인 어깨, 소매, 칼라, 허리, 스커트 등에서 볼 수 있다.

확대의 의미와 반대로 축소 과장은, 부피와 면적, 길이를 지나치게 작게 표현하거나, 모양이나 규모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을 말한다. 건축과 같은 조형물의 단순화란, 형태뿐 아니라 건축물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필요한 디테일을 생략하는 것을 말하는데, 패션에서의 단순화는 최소한의 표현이나 절제된 방식의 의복으로 간결하게 나타내고 불필요한 디테일이나 장식성을 배제하여 의복이 가진 기본적인 기능성조차 재해석하고 있다.²³⁾ 몸에 밀착시켜 인체와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 색시함을 강조한 스타일, 의복의 일부분만 표현한 미니 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축소에 의한 과장은 어깨, 가슴 등에 집중된다.

변형과 왜곡을 통한 과장은, 대상의 원형을 의도적으로 비정형화 시키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사실적인 것을 과장함으로써 효과를 달리하게 된다.²⁴⁾ 의복의 고유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왜곡시켜 표현한 것으로, 형태를 파괴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기능을 혼합시켜 시각적 균형과 형태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변형은 시각적 변화뿐 아니라 이미지의 변화도 포함하여 의복에 유

〈표 2〉 '과장관련 패션분야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 제목	과장의 유형 분류
한승수 (2010)	과장형 복식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과장의 유형을 확대와 축소, 왜곡과 변형, 착시에 의한 과장으로 구분
배정민 (2008)	Delong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현상 연구	조형예술에서의 과장을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으로 구분
이영제 외 (2007)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과장 표현에 관한 연구	과장의 개념을 안정적이고 시각적인 균형과 도형의 파괴, 무시라고 제시
이기열 외 (2006)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과장성의 표현방법으로 확대, 강조, 왜곡, 분해로 구분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신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체우선형, 신체무시형, 신체왜곡형으로 구분하였고, 역사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수직적, 수평적, 부분적 과장으로 구분
성광숙 외 (2004)	서양 복식에 나타난 양적 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과장의 본질을 역사주의적 전통성, 은유적 예술표현성, 탈 구속적 자유성, 인체와 의복의 해체적 과격성, 쾌락적 유희성, 심리적 보상성, 시대적 이상, 성적 관능성, 심미적 장식성, 자아확대적 충만성으로 표현
김의경 외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Emphasis 표현에 관한 연구	과장적 강조의 측면에서 과장에 대한 표현방법을 과장, 축소, 은폐, 왜곡, 변형으로 구분
박선희 (2001)	19C 근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	복식에서의 과장의 의미를 형태와 부피의 돌출과 팽창, 지나친 노출에 의한 비침, 길이의 신장, 의도적 부피의 축소, 왜곡, 확대로 제시

↓

확대와 축소의 과장	변형과 왜곡의 과장	강조와 장식의 과장
------------	------------	------------

회적 감각, 동화적 환상, 괴이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강조와 장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장은, 대상이 갖는 구성요소들을 생략과 과도한 부가, 크기의 변화를 통해 의도의 강도를 분명히 하는 것을 가리킨다.²⁵⁾ 이처럼 여백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장식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의복에서 장식은 인체의 특정 부위인 목, 팔, 허리, 엉덩이 등을 강조해 여성미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과장의 방법으로 사용한다.²⁶⁾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장식을 줌으로써 미적 만족을 취하며 장식의 방법이 극도에 달할 때에는 바탕과 장식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과잉 장식이 되기도 한다.

4. 니트 패션

니트는 오래전부터 실생활과 함께 차용되어 왔다. 니트의 발생은 추위와 거친 파도, 비바람과 같은 자연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여야 하는 보온, 방수의 목적으로 발생하였다. 중세시대에 들어 니트는 교회나 수도원 중심으로 신성성, 존경, 검소 등의 종교적 상징과 함께 화려함으로 권위를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발달하여 확산되었으며, 르네상스시대에 들어 영국에서 윌리엄·리 의 편물기계 발명으로 인한 니트의 발전은 엘리자베스 1세기 말에 예술적인 감각까지 지니게 되면서 고급패션에 속하게 되었다.²⁷⁾ 1990년대 이전까지는 니트웨어, 메리야스, 스웨터, 편성물, 편물, 편직, 저어지 등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채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니트라 함은 대바늘을 이용해 뜨는 핸드 니트와 그 원리가 발전된 기계 니트를 의미한다.²⁸⁾

현대에 와서 니트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네팅(Netting), 넬 바인딩(Nalbinding), 스프랭(Sprang), 크로체(Crochet) 등의 기법²⁹⁾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은 물론이고 대바늘, 코바늘, 기계 니트를 사용하여 생산되고 가공된 모든 의류제품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전환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니트가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화와 도

시화는 과거와 다른 착장방식을 요구하였고 패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패셔너블하면서 실용적인 의상을 선호하게 되고, 장식과 과시의 대상이 아닌 활동성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구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니트웨어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 물리적 특성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특성을 패션의 요소로 응용하면서 니트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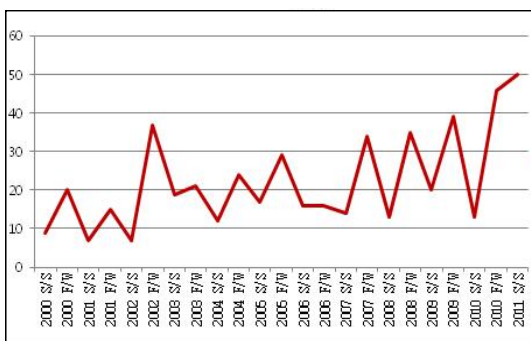
니트 패션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 배경은, '여성 해방운동'과 '제 1차 세계대전', '스포츠 패션'의 등장이다.³⁰⁾ 이 시기는 노동력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중·하류층이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보온성 등 실용적인 이유로 샤넬, 장 파투, 엘자 스키아파렐리 등과 같은 당시 진보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었다.³¹⁾ 또한 19세기 말경 유행하기 시작한 스포츠 열풍은 니트웨어의 패션화와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세기에 들어 여성의 신체곡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자체의 신축성과 형태 복원력이 뛰어난 저지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0세기 이후의 니트 패션은 시대적 배경에 따른 동시대 패션의 변화와 함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면서 디자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니트 소재를 사용한 작품 중에 니트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독특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발상으로 더욱 혁신적인 조형성을 보여주며 기술적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 현대 니트 패션에 표현된 과장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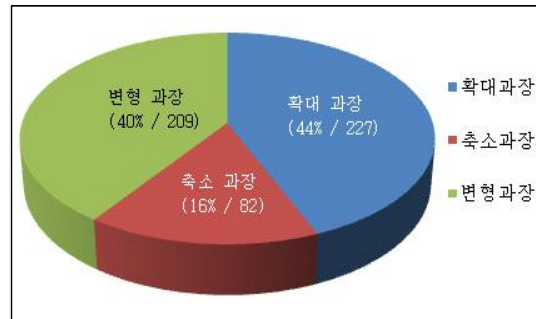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000년 S/S부터 2011년 S/S 컬렉션까지 세계 4대 여성복컬렉션에 발표된 과장성 니트웨어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객관화된 분석을 위해 수집된 45인의 디자이너 작품 787점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9인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520점의 자료를 연도와 시즌에 따른 분포와 변화 추이, 색상과 색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

타난 분류를 참고하여 확대와 축소과장은 분리하여 세분화 하였으며 왜곡과 강조는 형태변형으로, 장식과장은 패턴 변형으로 통합하여 변형과장으로 분류하여 니트패션에 나타난 니트의 특성과 독창성에 적합한 분류로 재구성 하였다. 분류한 작품을 분석하여 니트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하면, 확대 과장은, 전체적인 실루엣의 확장으로 과장을 표현한 '부피·면적의 확대', 실·바늘의 굵기를 조절해 과장을 표현한 '소재·게이지·조직의 응용에 의한 확대'로 분류하였다. 축소 과장은, 인체를 최소화하여 과감하게 삭제하여 표현한 '미니형', 몸에 피트 시켜 면적을 최소화하여 단순하게 표현한 '스키니형'으로 나타났다. 변형 과장은, 형태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여 인체의 자연스러운 비례를 무시하고 왜곡되게 표현한 '형태 변형', 선·면·소재·색채를 자유자재로 배열하여 착시효과를 통해 과장성을 표현한 '패턴 변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의 디자인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니트는 그 특성상 대체로 S/S시즌에 비해 F/W시즌에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 상승·하향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02년에 과장성 니트웨어 비중이 높아지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더니, 2007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 과장성 니트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패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 과장성 니트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보여지는 과장의 형태는 확대 과장으로 전체의 44%를 점유하였으며, 변형 과장은 40% 보여졌다. 그에 비해 축소 과장은 14%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그림 2).



〈그림 1〉 과장성 니트웨어의 시즌별 추이



〈그림 2〉 과장성 니트웨어의 유형별 비율

1. 확대 과장

확대 과장은 니트 패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과장 형태로 다양한 방법의 시도로서 조형적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인체의 어느 곳에선 적용이 가능하며 확대의 표현을 위해 과도한 패드나 심 등을 넣거나 주름이나 러플 등을 과하게 부풀리는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확대 과장은 조형적 요소가 많이 보여져 아트 웨어 (art to wear)로 표현되기도 하며, 섬유예술과 의상의 결합으로 새로운 조형작업의 결과물로 표현된다. 실제로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는 확대 과장형 의상은, 입는 옷(wearables)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서 조형성을 강조한 조각과 같이 형태에 중점을 둔 옷(unwearable)들이 많고, 인체에서 벗어난 왜곡된 형태의 것이 많다. 특히 새로운 조형감이 요구되는 현대에는 정(靜)적인 형태의 확대 과장뿐 아니라 움직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보이게 하는 가변성(可變性)이 도입되면서 의상을 통한 예술표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니트웨어를 통해 살펴본 확대 과장은 조형적 측면이나 표현의 다양성에서 부족하지 않으며, 직물에서 표현되기 어려운 다양한 소재와 게이지·조직의 변화에 따른 확대 과장의 표현이 가능하여 새로운 조형감과 부피감, 표면감이 잘 나타나 있다. 컬렉션을 통해 발표된 니트의 확대과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풍성하게 인체를 감싸 공간감을 형성한 것과 목, 어깨, 팔, 햄 라인 등 부분적으로 볼륨을 준 부피와 면적의 확대, 니트의 늘어지는 특성을 활용한 인체를

상하로 길게 늘인 것처럼 바닥에 끌리고 늘어선 길이의 확대, 니트웨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게이지의 크기와 조직의 크기,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볼륨을 조절하여 표현한 소재·게이지·조직의 응용에 의한 확대를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부피와 면적의 확대

전체적인 실루엣을 확대 표현하는 방법으로 좌우 크기의 확대와 비대칭적인 방법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하학적인 도형의 의미로 확대하기도 한다. 어깨를 넓게 확대하고 몸체를 과도하게 둥글게 부풀리거나 인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과하게 포장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소니아 리키엘(Sonia Riykiel)은 소매와 몸체를 구분하지 않은 일체형에 큰 리본을 활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내었으며 전체적으로 동일색상을 활용하여 부피감을 더했다. 리본의 볼륨이 부피감을 더한, 장식을 활용한 과장형 디자인이다.(그림 3)³²⁾ 2002년 F/W 컬렉션에 발표한 준코 시마다의 작품은 로우 게이지로 작업하여 전체적으로 풍성한 볼륨과 공간감을 형성한 전형적인 확대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림 4)³³⁾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네크라인을 상체를 덮을 만큼 확장시켜 볼륨 있게 확장하였고 소매 길이까지 길게 늘어 전체적으로 확

대 과장의 특성을 잘 표현하였다.(그림 5)³⁴⁾ 겐조의 작품은 상의에서 하의까지 계단식으로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풍성하게 과장성을 나타냈다. 2007년 F/W 이에스(ES) 컬렉션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랩 코트 스타일로 두꺼운 커튼 장식과 같은 벨트가 어우러져 풍성하고 공간감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6)³⁵⁾

2) 소재, 게이지의 확대

니트 패션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확대 과장 방법으로 실과 바늘의 굵기를 크게 하여 다양한 조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굵기에 따라 다양한 조직과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확대 과장 방법이다. 알렉산더 맥퀸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로우 게이지로 싱글게 짜 스웨터의 네크라인 부분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꼬임이 없는 원사와 같은 굵은 실을 엮기설기 없 어놓은 듯한 과한 장식으로 상체에 과다한 공간을 형성하여 거대해 보이게 하였다.(그림 7)³⁶⁾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가 2008 F/W 컬렉션에 발표한 니트웨어 작품에서는 실의 꼬임이 없는 로빙사와 같은 아주 굵은 실을 사용해서 코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살렸으며 조직을 확연하게 보여주어 로우 게이지를 활용한 디자인의 표본을 보여주었다.(그림 8)³⁷⁾ 베네통(Benetton)의 2007 S/S 컬렉션에서는



〈그림 3〉 2007 FW
Sonia Rykiel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 2002 FW
Junko Shimada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5〉 2008 FW
Martin Margiela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2007 FW
E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2000 FW
Alexander McQueen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8〉 2008 FW
Antonio Berardi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9〉 2007 SS
Benetton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2008 FW
Veronique Leroy
- <http://www.firstviewkorea.com>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게이지를 비대칭으로 배열함으로써 부피감을 주어 크기의 대비를 확연하게 보여주었고 장식적인 효과도 나타내었다.〈그림 9〉³⁸⁾ 베로니크 르로이 (Veronique Leroy)는 거칠고 두꺼운 실을 길게 늘어지게 한 핸드니트 기법을 이용한 조직으로 케이프 형태의 상의에 관한 장식조직으로 볼륨감을 준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10〉³⁹⁾

바디 피트(body fit) 형으로 하이 게이지의 실과 매트한 조직을 활용한 스키니 스타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장의 표현은 니트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실의 굵기를 활용하여 인체의 선을 잘 드러나게 한 것과 실의 종류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피트 되면서 인체가 비치는 효과를 주어 색시함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 신축성이 강한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 등이 주를 이룬다.

2. 축소 과장

축소에 의한 과장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은 대체로 인체를 억압하거나 단순화 시킨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인체의 부위 중 축소를 표현하는 데는 시대적 미의 기준이 맥을 같이 하나 인체의 여성미를 보다 아름답고 섹시하게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과장 방법이다.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눈은 작은 부분은 형태로 지각하게 되고 큰 부분은 공간으로 지각하게 되므로, 축소된 형태는 인체의 일부분으로 의식되거나 인체 그 자체로 인식되어 옷을 입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니트 컬렉션에 나타난 축소 과장의 표현은 신체의 일부분만을 니트로 나타내어 그것만이 옷으로 인식되게 한 미니멀 하면서도 유희적 요소를 가미한 미니 스타일과, 인체를 내부로 축소시킨 듯한 과장된

1) 미니형 축소

최소의 표현을 위해 의복의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면적을 최소화하는 표현 방법으로, 인체를 가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최소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논란과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체의 가려지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점을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더욱 부각시켜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니스타일의 니트웨어 표현으로 미치코 코시노는 2000년 F/W 컬렉션에서 로우 게이지의 커다란 케이블 조직으로 어깨부분만 덮는 미니 스웨터를 하이 게이지의 인체가 드러나는 폴오버에 매치 시켜 의복의 일부분만 입은 것 같이 표현하였다.〈그림 11〉⁴⁰⁾ 의복의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장난스

러운 듯한 표현이 건축에서 보여지는 유희성의 특성을 담고 있다. 감정 자극과 매치하여 다채로운 변형을 준 2010년 F/W 에르메스(Hermes)의 컬렉션에서는 양가죽을 매치한 미니 폴라를 선보였다.<그림 12>⁴¹⁾ 마치 영국의 거리를 걷는 남장 여자와 같은 분위기의 클래식한 컬렉션에 고티에식 재미와 위트를 가미했다.

2) 스키니형 축소

인체를 있는 그대로 미화하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과장 형태로 의복을 인체와 밀착시켜 단순화시킨 바디 피트형으로 2009년 S/S TSE의 니트 원피스는 드라이한 텍스처어와 스킨색상에 가까운 바디 피트한 실루엣의 조화로 가볍고 깨끗하면서도 섹시함을 표현한다. 캐시미어 소재의 화인 게이지 조직으로 가볍게 단순화한 디자인이다.<그림 13>⁴²⁾ 솔과 후드 등의 분리된 조각을 매치하여 수도원과 같은 고전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극도로 신체에 밀착된 심플한 디자인과 레이어드의 비율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가미시켜, 인체 그 자체를 강조하는 과장된 스타일이다.

이세이 미야케(Issay Miyake)의 컬렉션은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화인게이지의 소재와 믹스되어 인체를 강조한 섹시한 스타일로 제안된다.⁴³⁾

스타킹과 같은 조직의 레깅스를 신체 전체에 입히고 에스닉한 컬러로 미니멀하게 표현하였다. 패턴과 액세서리에 임팩트를 부여하여 극도로 절제된 스키니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었다.<그림 14>⁴⁴⁾

3. 변형 과장

전통적 조화의 균형과 비율을 파괴하는 새로운 미의식으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비례를 무시하고 장식주의적인 과감한 변형을 시도한 것을 변형 과장이라 한다. 따라서 변형(變形, deformation) 과장은 인체에 대한 왜곡이고,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인체의 변형(body modification)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미적 쾌감·호기심·흥미·긴장감·충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며, 변형을 통해 인체에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시대를 투영시킨다. 니트패션에서 보여지는 변형 과장은 의복의 기본적인 형태를 무시하고 구성선을 파괴하는 형태로, 옆선과 소매의 암홀선을 연결하여 기능적인 라인을 무시한 형태의 파괴로 표현하였으며, 인체의 기본 형태를 바꾸어 일부분을 과장되게 돌출시키거나 뒤틀린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여 기존의 사고를 벗어난 기발한 발상과 형태의 왜곡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패턴을 자유자재로 연결하



<그림 11> 2000 FW
Michiko Koshi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2> 2010 FW
Herme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3> 2009 FW
TSE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2005 SS
Issay Miyake
- <http://www.firstviewkorea.com>

여 새로운 형상으로 인식되는 패턴의 변형으로 표현하였다.

1) 형태 변형

형태 변형에 의한 의복표현은 확대과장의 부피와 면적 과장과 혼합하여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과장의 의도가 의복 고유의 균형과 비례관계를 깨뜨리고 특이한 형태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인체 본래의 형상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인체의 형태나 용적을 바꾸고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전형적인 비율을 파괴한다. 이는 적극적인 조형의지와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형태로 재구성 하여 표현하였다. 인체는 선(line), 형(shape), 색(color), 가치(value) 등의 요소를 표출해 내는 도구로서 머리, 목, 몸통, 팔, 다리가 수직축에 의해 좌우 대칭으로 배열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며, 인공적인 성형이 가능한 조형성을 갖는다. 성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도적인 인체의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17-18세기에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가느다란 허리, 스커트의 변화로 자연적인 신체곡선을 왜곡시켰다. 이는 인체에 대한 극도의 변형으로 시대적 미의식뿐 만 아니라 인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인위적으로 성형, 왜곡, 훼손시키기도 한다. 즉, 과장된 변형은 유머러스하고, 우스꽝스

러운 느낌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어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아름다워지기 위해 지나친 장식을 함으로 미적 부위가 과장되어 보이며 장식된 곳이 강조됨에 따라 시선이 멈추게 만든다. 이것은 매력이 되는 곳을 장식 과장함으로 강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맥퀸은 2009년 F/W 컬렉션에서 섹시들을 연상시키는 입술과 연극적인 코스튬으로 기존 여성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파괴했다. 과장된 상체와, 형태가 왜곡된 스커트, 스타킹까지 각기 다른 스트라이프 조직을 사용하여 인체를 더욱 왜곡되어 보이게 하였고, 빨간색 굵은 라인의 드레스에 빨간색 라인의 후드로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나 우스꽝스러운 조화로 잔인한 유머를 표현했다.<그림 15>⁴⁵⁾ 스코틀랜드의 무드를 핑키한 감각으로 경쾌하게 풀어낸 장 폴 고티에는 스코틀랜드 귀족의 문장을 연상하게 하는 조직이 들어간, 블랙과 레드 의 강한 컬러대비로 성글게 짜인 기묘한 느낌의 니트웨어를 체크패턴과 매치함으로, 귀족적인 스코틀랜드의 헌팅룩에 핑크적인 요소들이 믹스되었다. 머리와 얼굴을 같은 조직의 가면으로 감싸, 자신만의 유희함과 핑크 정신이 담긴 스타일을 담아내고 있다.<그림 16>⁴⁶⁾ 소니아 리키엘은 2009년 S/S 컬렉션에서 니트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 유니크한 디자인을 발표했다. 아래에서부터 옷을



<그림 15> 2009 FW
Alexander McQueen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6> 2007 FW
Jean Paul Gaultier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7> 2009 SS
Sonia Rykiel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8> 2002 FW
Comme des Garçons
- <http://www.firstviewkorea.com>

짜 올라가는 듯한 형태의 드레스는 과감한 미스 조 직으로 인체를 드러내어 섹시함과 유희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그림 17>⁴⁷⁾ 2002년 F/W 폼 데 가르송 컬렉션은 의복의 구성선을 무시하고 뒤틀린 형태로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긴 원피스 스타일을 네크 에서부터 비틀어주었으며 한쪽 가슴부분에 입술 모양을 튀어나와 보이게 장식하여 입체감을 주어 더욱 뒤틀린 듯한 착시 효과를 연출하였다.<그림 18>⁴⁸⁾

2) 패턴 변형

인간의 시각 경험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본 것을 해석하는 내용은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지식과 권력의 형태, 욕망의 통제 체제 등의 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시각과 진실 사이에는 자연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⁹⁾ 보는 것에 의한 의도적 연출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표현방법이다. 패션에서의 패턴변형에 의한 과장은 이상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면·소재·색채 등을 사용하여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과장의 형태이다. 니트에서는 선·면·소재·색채 및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배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요소를 만들어내며 패턴과 색상, 조직의 변형에 의해

과장된 표현이 보여진다.

2010년 F/W 컬렉션에 미소니(Misoni)가 발표한 작품은 여러 가지 패턴을 사각 형태로 이어붙인 디자인으로 사각형의 모양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찌그러뜨린 듯한 착시효과를 보여준다.<그림 19>⁵⁰⁾ 2010년 F/W 컬렉션에서 준코 시마다는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한 곡선의 패턴을 과감하게 비대칭으로 배열하여 옷의 경계가 없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여준다.<그림 20>⁵¹⁾ 소니아 리키엘은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프릴 형태로 자유롭게 연결하여 착시 효과를 주었으며 프릴 스트라이프의 크기도 다양하게 하여 볼륨감과 공간감을 형성하였다.<그림 21>⁵²⁾ 겐조는 2008년 F/W 컬렉션에서 패턴의 연결과 다양한 색상의 혼합이 착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패턴의 크기와 연결 부분에 따라 구성선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보이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2>⁵³⁾

이와 같이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된 의복의 표현특성 및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IV. 요약 및 결론

패션이 자기과시의 목적으로 표현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패션선택의 중요한 동기인 것은 틀림없



<그림 19> 2010FW
Misoni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2010 FW
Junko Shimada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1> 2009 SS
Sonia Rikyiel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 2008 FW
Kenzo
-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3〉 현대 니트웨어의 과장성 표현특성

구분	확대 과장		축소 과장		변형 과장	
	부피, 면적 확대	소재, 게이시 확대	미니형 축소	스키니형 축소	형태 변형	패턴 변형
개념	전체적인 실루엣의 확장	원사, 바늘 굵기에 의한 과장	인체최소화 과감하게 삭제	면적최소화 단순화한 표현	형태 조화 균형과 비율 파괴	선·면·소재·색채 등에 의한 착시
형태	사각형·원통형·원뿔형	모티브 조직의 크기 변화	어깨·소매 등 일부 표현	바디컨서스, 밀착형	기본형 파괴 다양한 형태	옵티컬 패턴 기하학 무늬 등
사례						

- www.firstviewkorea.com

다. 대중들의 패션 선택의 기준은 점점 더 개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패션을 다양하게 만들고 기존의 것을 깨뜨리며 또 다른 미의식을 만들어 왔다. 과장형 패션은 이러한 새로운 미의식의 추구로 현대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 니트 패션에서도 맥을 같이하여 니트의 특성과 다양한 표현력을 살려 과장형 니트웨어를 발표하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성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확대, 축소, 변형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2000년 S/S부터 2011년 S/S까지 12년간 23 시즌의 여성복 컬렉션을 통해 수집된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확대 과장은 부피·면적의 확대, 소재·게이시·조직의 응용에 의한 확대로 나타났으며, 축소 과장은 미니형 축소, 스키니형 축소로, 변형 과장은 형태의 변형, 패턴 변형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특성을 살펴 보았다. 각 유형별로 빈도를 살펴본 결과, 확대 과장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변형 과장이 40%, 축소 과장이 16%로 각각 나타났다. 세분화

된 유형으로는 변형 과장의 형태 변형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이 보여진 과장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디자이너들이 발표한 작품의 특성은 전체적인 실루엣의 부피와 면적을 과장되게 표현한 디자인이 많은 디자이너들에게서 보여졌으며, 소재와 게이시의 변화에 따른 표면감, 입체감을 살려 과장한 디자인과 의복의 일부분을 변형하거나 왜곡시켜 형태를 무너뜨린 디자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과장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에서 표현되기 어려운, 꼬임이 없는 로빙사나 비닐이나 리본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하이·로우 게이시의 핸드 니팅, 가는 실로 성글게 짠 조직과 굵은 실을 이용해 요철을 나타내거나 모티브를 이용한 조직의 변화에 따른 확대 과장의 표현이 가능하여 새로운 조형감과 볼륨감, 표면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실의 굵기를 활용하여 인체의 선을 잘 드러나게 한 것과 실의 종류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피트 되면서 인체가 비치는 효과를 주어 색시함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신축성이 강한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화시켜 표현하였으며, 몸에 밀착시켜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를 강조

하여 색시미와 곡선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니트의 특성인 가변성과 무경계성을 잘 살려 기존의 사교를 벗어난 기발한 발상과 형태의 왜곡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색채와 패턴을 자유자재로 연결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인식되는 패턴의 변형으로 표현하였고 자유로움과 유희성, 다양성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니트의 특성을 니트의 기법과 잘 매치시킨다면 다양한 디자인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며, 핸드니트나 기계니트 뿐 아니라 편직한 니트를 패턴에 의해 구성한다면 무한한 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니트는 이러한 기법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니트 디자인은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는 개성화 시대로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 되고 소형화 되었다. 컴팩트화 된 사회현상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개별화되어 자신만의 것을 추구한다. 절대적인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형태의 변화가 용이하고 소재와 조직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니트는 차별화 된 패션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며, 니트웨어에 나타난 과장성 패션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애용하는 디자인 아이템 중 하나로 대중의 패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만족감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니트 소재나 조직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니트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정진 (1999), 복식사에 나타난 인체의 과장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2) Ann L. Hollander (1975),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p.85.
- 3)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p. 560.
- 4)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5) 이기열 외 (2007),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1), p. 401.
- 6) 김혜경 (2000), 건축과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디자인포럼21*, 4, p. 91.
- 7) 권상우 (1992),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p. 127.
- 8) 이수진 (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 -과장

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9) 김호정 (2005), *op. cit.*, p. 26.
- 10) 김정진 (1999), *op. cit.*, p. 57.
- 11) 김호정 (2005), *op. cit.*, p. 28.
- 12) *Ibid.*, p. 22.
- 13) 한승수 (2010), 과장형 복식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 14) 정현숙 (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 5.
- 15) 김영옥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5.
- 16)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blog.daum.net/dongwanoror/>;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133;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blog.naver.com/mint_yummy?Redirect=Log&logNo=140169348121&from=section;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arneri&logNo=30022295271&parentCategoryNo=8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m.blog.daum.net/leesj7530>;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www.purpl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m.blog.daum.net/ggup6105/15592580#>;
"Donna Karan 2012 F/W",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firstviewkorea.co.kr>;
Koda, H., *op. cit.*, p. 112;
Koda, H., *op. cit.*, p. 112;
Koda, H., *op. cit.*, p. 88;
Koda, H., *op. cit.*, p. 88.
- 17) 김경은 (1996), 복식에 나타난 확대와 과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 18) 김영란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변형,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4.
- 19) 배정민 (2007), DeLong 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
- 20) 이기열 외 (2006), *op. cit.*, p. 401.
- 21) 김의경, 이재정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Emphasis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2), pp. 56-59.
- 22) 이기열 외 (2006), *op. cit.*, p. 402.
- 23) 김영란 (2007), *op. cit.*, p. 12.
- 24) 이수진 (2003), *op. cit.*, p. 5.
- 25) 이기열 외 (2007), *op. cit.*, p. 402.
- 26)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 153.
- 27) 전현옥 (2001), 니트웨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6.
- 28) 권진 (2005),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 기법 특성에 관

- 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 29) 이인성, 범성희 (2008), *Knit Design*, 서울: 교학연구사, p. 8.
 - 30) 최광돈 (2010), 현대 니트 패션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8.
 - 31) 이미숙 (1999), 샤넬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5.
 - 32) Sonia Rykiel,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7 F/W
 - 33) Junko Shimada,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2 F/W
 - 34) Martin Margiela,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35) ES,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36) Alexander McQueen,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37) Antonio Berardi,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38) Benetton,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39) Beronique Leroy,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40) Michiko Koshino,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41) Hermes,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42) TSE,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43)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ashionnetkorea.com>, 2005 S/S Collection
 - 44) Issay Miyake,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
 - 45) Alexander McQueen,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9 F/W
 - 46) Jean Paul Gaultier,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7 F/W
 - 47) Sonia Rikyiel,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7 F/W Co
 - 48) Comme des Garçons,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2 F/W
 - 49) 매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2006),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서울: 현실문화 연구사, p. 8.
 - 50) Missoni,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10 F/W
 - 51) Junko Shimada,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10 F/W
 - 52) Sonia Rikyiel,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9 S/S
 - 53) Kenzo,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firstviewkorea.com> 2008 F/W